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보고서

2018. 12.



I. 경기전망(BSI)

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실사지수(BSI)는 전분기(73.1)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65.8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BSI가 60대로 떨어지며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내리스크 증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경영여건이 전 업종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제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완성차 업계 불황과 더불어 전기차·수소차 개발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에도 대내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과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의 경기불안 등이 체감경기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4/4분기 BSI 실적치는 기준치(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2.2로 집계되어 지역기업의 실적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 청도지역 경기전망 B.S.I 추이>



구분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망 BSI	89	79	78	77	90	85	76	77	89	84	75	78	92	76	73	66
실적 BIS	77	71	71	75	77	75	76	75	76	72	73	73	78	68	72	

◆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주요 업종별 1/4분기 전망 BSI는 기계·금속업종이 60, 섬유 63.2, 화학·플라스틱 66.7, 기타 업종이 73.7로 나타나, 업종 전반에 걸쳐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부문별 1/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내수가 66.2, 수출은 76.1, 영업이익은 내수가 68.9, 수출이 74.2, 자금 조달여건이 75.3으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였다.

<주요 업종별 · 부문별 B.S.I>

항 목		분 기	2018년 4/4분기 실적	2019년 1/4분기 전망
업 종 별	전 제조업		72.2	65.8
	기계·금속		79.3	60.0
	섬유		52.9	63.2
	화학·플라스틱		73.7	66.7
	기타		78.6	73.7
부 문 별	체감경기		74.1	65.8
	매출액(내수)		77.4	66.2
	매출액(수출)		79.4	76.1
	영업이익(내수)		67.7	68.9
	영업이익(수출)		71.2	74.2
	자금조달여건		67.8	75.3

Ⅱ.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

① 올해와 비교해 2019년의 경제 흐름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백분율
매우 악화	20.4%
악화	44.9%
올해와 비슷	28.6%
호전	6.1%
매우 호전	0.0%
합 계	100%

☞ ‘악화’에 44.9%, ‘올해와 비슷’에 28.6%, ‘매우 악화’가 20.4%, ‘호전’이 6.1%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백분율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	40.5%
관련 규제법안	7.1%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10.7%
내수 침체 장기화	39.3%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2.4%
기타	0.0%
합 계	100%

☞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가 40.5%, ‘내수 침체 장기화’가 39.3%,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10.7%, ‘관련 규제법안’이 7.1%,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가 2.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③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백분율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37.9%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30.3%
고유가 현상 지속	9.1%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	16.7%
기타	6.0%
합 계	100%

☞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37.9%,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30.3%,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이 16.7%, ‘고유가 현상 지속’이 9.1%, ‘기타’가 6.0%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4 내년도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백분율
공격적	20.4%
보수적	79.6%
합 계	100%

☞ '보수적'이 79.6%, '공격적'이 20.4%로 조사되었다.

수 (4에서 '보수적'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백분율
기존시장 경쟁 과다	15.7%
신규투자처 부족	2.9%
경기 불확실성 증대	37.1%
자금조달 어려움	20.0%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24.3%
각종 규제	0.0%
합 계	100%

☞ '경기 불확실성 증대'가 37.1%, '고용노동환경의 변화'가 24.3%, '자금조달 어려움'이 20.0%, '기존시장 경쟁 과다'가 15.7%, '신규투자처 부족'이 2.9% 순으로 조사되었다.

6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백분율
예	20.4%
아니오	79.6%
합 계	100%

☞ '아니오'가 79.6%, '예'가 20.4%로 조사되었다.

7] (6에서 '예'에 답한 경우) 투자하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백분율
미국	8.3%
중국	50.0%
일본	0.0%
EU	8.3%
기타	33.4%
합 계	100%

☞ '중국'이 50%, '미국'이 8.3%, 'EU'가 8.3%, '기타'(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가 33.4% 순으로 조사되었다.

8] (6에서 '예'에 답한 경우)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규모 축소로 이어졌습니까?

	백분율
예	33.3%
아니오	66.7%
합 계	100%

☞ '아니오'가 66.7%, '예'가 33.3%로 조사되었다.

순 (6에서 '예'에 답한 경우) 해외현지의 규제 체감수준과 비교 했을 때, 국내 규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백분율
매우 높음	0.0%
높음	22.2%
비슷한 수준	77.8%
낮음	0.0%
매우 낮음	0.0%
합 계	100%

☞ '비슷한 수준'이 77.8%, '높음'이 22.2%로 조사되었다.